

# 맑고 순수한 어린이 눈으로 바라본 '사랑의 묘약'

오는 21-22일 ACC재단 어린이 오페라

“때로는 순수하고 바보 같은 진심이 최고의 약이 될 때도 있으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기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으로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1-22일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ACC 난생처음 시리즈'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선보인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이탈리아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제티(Gaetano Donizetti)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일생 동안 70여편에 이르는 오페라를 작곡한 도니제티는 단 2주만에 작곡했다. 유쾌한 웃음과 아름다운 멜로디, 재치 넘치는 이야기와 순수한 사랑을 소재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 시골의 순수 청년

아름다운 멜로디와 재치있는 이야기 구성 '눈길' 노래로 풀어낸 대사 '레지타티보' 한국어로 전달

네모리노는 아름다운 농장 주인 아가씨 아디나를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다. 항상 재미있고 다양한 사랑을 꿈꾸는 아디나와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네모리노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던 어느날 네모리노는 그녀에게 용기를 내 사랑을 고백하려 한다. 때마침 아디나에게 당장 결혼하자며 나타난 벨코레 소령. 마음이 급해진 네모리노는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약장수 둘카 마라에게 가짜 '사랑의 묘약'을 구입하고, 이를 통해 그녀의 사랑을 얻으려 한다.

이번 공연은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대사를 노래하듯 부

르는 '레지타티보'를 한국어로 번역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또 아리아와 중창은 원어인 이탈리아어로 구성해 원작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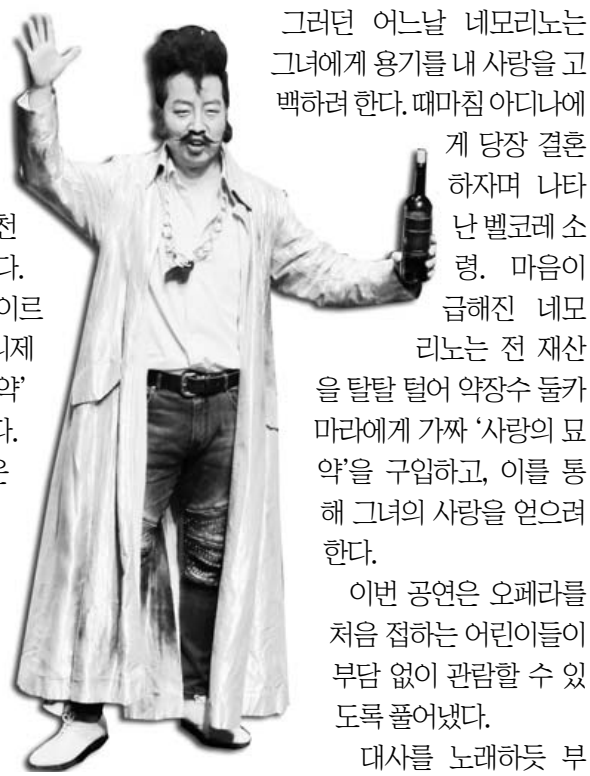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21-22일 오후 2시에 공연하며, 5세 이상이면 관람 가능하다. 관람권은 1만 5천원이며, ACC재단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올 한해

어린이극장 난생처음 시리즈를 통해 발레, 오페라, 국악무용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CC재단이 기획한 '난생처음 시리즈'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애 처음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된 공연이다. 해설이 있는 공연, 체험이 함께하는 공연, 관객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통해 극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마련했다.

/최명진 기자



어린이 오페라 '사랑의 묘약' 공연 모습.

## 광주여성가족재단 '2024 연구성과 발표회'

오늘 시의회 예·결산위원회의실

광주여성가족재단과 광주시의회가 13일 오후 2시 시의회 예·결산위원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2024년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재단이 진행한 올해 연구과제 중 시민공유가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책임자가 발표하고 정책방안과 시책사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시민과 공감하는 여성가족 정책을 만들어나간다는 방안이다.

이날 발표회 첫 번째 섹션은 임미란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태순 '광주시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 방안' ▲박주희 '국내외 1인가구 지원 정책 분석 및 광주시 정책 과제' 발표가 이뤄진다.

두 번째 섹션은 전명숙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신 '광주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고보혜 '광주 성인 자 교육 효율화 방안' 주제 발표가 이어

진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발표회가 광주지역 여성·가족 및 아동·청소년의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현장중심형 정책 개발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정책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통일신라-조선시대 수증유물 특별전



17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목포해양유물전시관 통일신라 영흥도선·제주-태안해역 유물 비교 전시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해양유물전시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10년의 바다, 특별한 발견'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로 수증유물을 구분해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총 4부로 나눠서 구성했다.

개막식은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이며, 전시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열린다. 최근 10년(2012-2022)간 태안 마도와 제주 신창리해역 등에서 출수한 수증 유물 100여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선박, 영흥도선'을 주제로 2012-2013년 발굴한 영흥도선 출수유물을 전시한다. 선체 내부에서 출수된 도기 장군, 도기 병, 동제 귀 때 바리 등은 같은 시대 경주 월지과 광양 마로산성, 제주 용천동굴에서 발굴된 통일신라 유물들과도 비교해볼 수 있어 흥미롭다.

2부 '제주해역, 송나라 유물'에서는 제주 신창리 해역의 발굴 성과를 소개한다. 제주 신창리 해역의 수증 유물들은 1983년 해녀들이 금제 뒤꽂이를 발견하면서 처음 알려졌고, 이후 2019년

부터 3년간 이뤄진 발굴에서 중국 남송대 용연요 청자, 경덕진요 청백자, 복견성 백자와 청자, 금속 합, '근봉(謹封)' 글자가 새겨진 목제 인장 등이 출수됐다.

3부 '조선시대 조운선, 마도4호선'에서는 태안 해역에서 확인한 마도4호선과 출수유물을 살펴볼 수 있다. 마도4호선은 '나주광흥창(羅州廣興倉)'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목간과 '내심(內艙)' 글자가 새겨진 분청사기 등이 출수되면서 최초로 확인된 조선시대 난파선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의 목적지인 한양 광흥창에서 사용하던 인장과 관련된 문서를 비롯해 '내심' 글자가 새겨진 분청사기를 생산하던 나주목 가마터 출토유물도 전시해 흥미롭게 조명했다.

4부 '태안해역, 조선왕실의 장식기와'에서는 2022년 태안 양잠리 조간대에서 발굴한 마루장식기위를 소개한다. 조선왕실의 장식기와인 마루장식기와는 한양의 와서(瓦礫)에서 제작돼 바다를 통해 전주 경기전, 태안읍성 동헌과 같은 지방 왕실의 진전, 관아, 행궁 등으로 운송됐다. 전시에서는 송대 문과 회암사지, 경북공에서 출토된 마루장식기위를 함께 선보여 각각의 유물을 서로 비교해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목포=정혜선 기자

## '명품의 비밀'...제10회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오늘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이 13일 '명품의 비밀'을 주제로 성인들을 위한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성인 관람객을 위한 국립광주과학관 대표 과학문화 행사다.

성인들이 과학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생활 속 과학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음악공연과 함께하는 사이언스 다이닝'을 시작으로 ▲지식콘서트 '명품브랜드 탄생' ▲전문가와 함께하는 '명품감정 클래스' ▲명품향수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제10회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